

HEADLINE NEWS

자원절약적·친환경적인 지하철 운영 관리 (런던)

영국 런던 지하철이 런던내의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과 보고서 2001/2(www.thetube.com/content/about/report/environment/env_report2002.pdf 참조)에 따르면, 런던 지하철은 전년도 대비 약 13%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전등 소등하기'를 통해 이룬 성과이다. 절약된 13%의 에너지는 지하철이 약 250만km를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에 고무된 역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절전운동을 하고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선로변과 야생동물 이동경로(ecological corridor)는 야생동물의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150년 된 지하철 역사(驛舍)와 함께 성장해온 장수 수종(樹種)들은 새들에게 천연의 둥지 역할을 하고 있다. 런던 지하철 당국은 현재 역사(驛舍)에 버려진 신문 등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 조만간 지하철이 재활용의 창구역할도 할 전망이다.

(www.thetube.co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도심부의 경관을 바꾸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추진 (헬싱키)

도시교통

- ②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벌금 2배 부과 (캘리포니아州: 샌타버버라)
- ③ 지하철 역사에서 'World Cities' 전시회 개최 (런던)
- ④ 낙후지역의 재개발계획과 연계해 버스서비스 개선 추진 (런던)
- ⑤ "과속차량 감시카메라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발생" (런던)

사회복지

- ⑥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시행 (케이프타운)
- ⑦ 신생아 유기 방지 위해 신생아를 놓고 갈 수 있는 '아기 바구니' 설치 (독일: 브레멘)

행재정

- ⑧ 선거일에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무료 운송 (베를린)
- ⑨ 범죄 예방 및 관광객 보호 위해 우범지역에 비디오 감시카메라 설치 (독일: 브레멘)
- ⑩ '차량번호 자유선택 서비스' 제공 (독일: 브레멘)

① 도심부의 경관을 바꾸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추진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市는 도심부의 Kamppi Center 건립에 착수한 지 3년만인 금년 8월에 도시계획 및 설계를 완료했다. 이 개발프로젝트는 헬싱키에서 수행된 도시계획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4년 후에는 헬싱키의 도시경관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대규모 미개발지로서 옥외버스터미널로 이용되어온 헬싱키 서쪽의 Kamppi 지역에는 지하 버스터미널, 백화점, 상업지역, 주택지역 및 광장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계획 추진기간 동안에는 도시전체의 교통노선이 상당부분 수정되고, Kamppi 지역 지하의 50만 입방미터의 암석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최신형 굴삭기 등이 동원될 계획이다.

버스터미널은 도시철도역 위에 2개층으로 건설되며, 고정식 플랫폼이 아닌 공항과 같이 messaging system platform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 হল은 여객 수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시설로도 사용될 예정인데, 이는 도심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하 건축물은 2005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 Kamppi 지역의 지상공간은 자동차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보행자는 2개의 광장을 포함해 이 지역 일대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된다. 이들 광장은 주로 콘서트,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 개최 장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www.hel.fi/english/current/index.html)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벌금 2배 부과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Santa Barbara) 및 벤추라(Ventura) 카운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2배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법(School Zone Pedestrian Safety bill)」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3년 1월부터 6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통법규위반차량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추가적인 벌금은 횡단보도 안내자 고용 및 교통안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이 법안의 시행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는 교통법규위반차량의 수 및 교통사고 건수를 집계, 이를 토대로 향후 주전역에 이 법안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샌타바버라 및 벤추라 카운티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부상 및 사망률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높은 편이어서, 그동안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www.latimes.com/editions/ventura/la-me-cross19sep19\(0,952165\).story?coll=la%2Deditions%2Dventura](http://www.latimes.com/editions/ventura/la-me-cross19sep19(0,952165).story?coll=la%2Deditions%2Dventura))

3 지하철 역사에서 ‘World Cities’ 전시회 개최 (런던)

영국 런던 지하철 피카딜리서커스驛에서는 금년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세계의 도시들(World Cities)’이라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런던 지하철이 올해 연중 행사로 기획한 ‘Platform for Art’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행사에는 나이지리아, 중국, 페루,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세계 도시들의 다양한 특징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www.thetube.com)

4] 낙후지역의 재개발계획과 연계해 버스서비스 개선 추진 (런던)

영국 런던 교통당국(TfL: Transport for London)은 낙후한 Battersea 일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 서비스 개선을 추진중이다. 우선, 158번 버스 노선을 연장해, 주민들이 쇼핑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하철과 국철의 단절구간을 버스로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전반적인 네트워크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교통당국은 버스의 배차회수를 늘리고, 서비스 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신형 2층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당국은 앞으로도 이 일대의 재개발계획과 내년도에 시행할 도심 혼잡통행료 부과계획에 맞춰 버스서비스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www.transportforlondon.gov.uk/buses)

5] “과속차량 감시카메라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발생” (런던)

영국 녹색압력단체(Green Campaigners)는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감시카메라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최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감시카메라 전방에서 카메라를 쉽게 식별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브레이크를 밟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과속으로 질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감시카메라가 커버하지 못하는 구간에서의 높은 교통사고율을 제시하면서, 감시카메라 때문에 교통사고율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의 21세기 교통 청사진 보고서인 「Transport 2000」에도 '감시카메라가 지나치게 눈에 띄게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METRO, 10. 29)

⑥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시행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시는 현재의 대중교통형태로는 원활한 이용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최근 시행하기 시작했다. 시는 승하차하기 불편한 장애인들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 ‘kerb-to-kerb’ 대중교통서비스를 시행키로 하고, 도시 내 모든 지체장애인들을 초청해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최근 가졌다. 또한, 특수 제작한 휠체어 이용자용 미니버스 17대를 도입해 운영하는 ‘Dial-a-Ride’ 서비스는 월~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와 국립교통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시는 신청자의 일반 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성에 대해 검토, 평가한 후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취업자가 통근수단으로 이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원할 경우 러시아워 시간 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루에 약 400명 정도가 서비스 이용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은 거리로 구분된 9개 구역별로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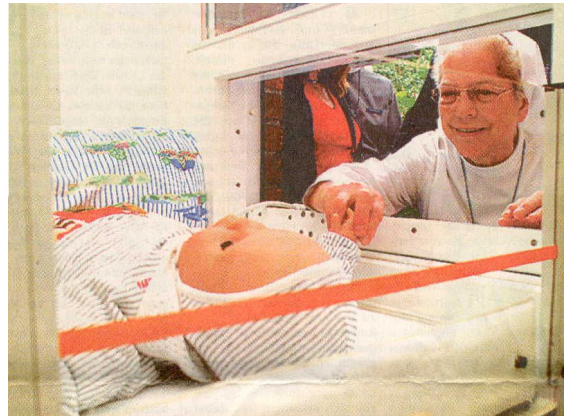
* kerb(연석):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되게 늘어놓은 돌

(www.capetown.gov.za/press/Newpress.asp?itemcode=505)

7 신생아 유기 방지 위해 신생아를 놓고 갈 수 있는 ‘아기 바구니’ 설치 (독일: 브레멘)

독일 브레멘시는 금년도 8월에 상트 요셉 스티프트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아기 바구니’ 설치식을 가졌다. ‘아기 바구니’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출산 후 계속 신생아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신생아를 놓고 갈 수 있는 곳이다(사진 참조). 이것을 설치한 주 목적은 여러 이유로 인해 음지에 방치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미성년자와 미혼모의 신생아들이 많이 버려졌으며, 이 중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생명을 잃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라서 신생아의 생명 보호와 산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번에 ‘아기 바구니’가 설치된 것이다.

‘아기 바구니’는 상트 요셉 스티프트 병원에 24시간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생아를 익명으로 갖다 놓을 수 있다. ‘아기 바구니’ 설치를 위한 비용은 25,000유로로서, 병원측에서 후원했다. 브레멘 중앙병원과 카톨릭수도원에서는 ‘아기 바구니’에 놓인 신생아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이후 비용을 후원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아기 바구니’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제작해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디스코텍, 극장 그리고 레스토랑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WESER KURIER, 8. 24)

8 선거일에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무료 운송 (베를린)

독일 베를린시는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려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투표소까지 무료로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최근 실시하기 시작했다. 투표 당일날 투표소까지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은 대체로 선거일 전에 부재자투표를 한다. 하지만, 시는 거동이 불편해 부재자투표소에 가기 힘든 사람들과, 투표율의 제고를 위해 투표 당일날 무료운송서비스를 하게 되었다. 시당국뿐만 아니라, 정당인 시민당에서도 최근 실시한 총선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행 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하기도 했으며,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이 선거일에 전화로 요청하면, 투표소까지 무료로 운송해주었다.

(Berliner Morgenpost, 9. 22)

9 범죄 예방 및 관광객 보호 위해 우범지역에 비디오 감시카메라 설치 (독일: 브레멘)

독일 브레멘시는 중앙역 주변이 시전역에서 범죄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에 따라, 금년도 10월에 범죄 예방과 관광객 보호를 위해 중앙역 부근에 비디오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감시카메라는 하루 24시간 작동되며, 실시간으로 중앙경찰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녹화된 필름은 중앙경찰청에 48시간 보관되며,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Bremer Nachrichten, 10. 6)

(44) '차량번호 자유선택 서비스' 제공 (독일: 브레멘)

독일 브레멘市는 올해 9월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차량번호를 사용 및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차량번호 허가소에서 시민들이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골라야 했는데, 선택의 폭이 좁아 시민 개개인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이에 市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자유로운 행정서비스를 위해 '차량번호 자유선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래사진에 있는 차량번호를 예로 들면, 남편인 클라우스의 첫자 C와 아내인 마리나의 첫자 M을 따 차량번호를 만든 것이다. 뒤의 번호도 이미 등록된 번호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맨 앞의 HB는 브레멘市 지역을 뜻한다.

市는 원활한 등록절차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차량번호의



예약과 등록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시민들은 집에서 차량번호를 예약 및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차량번호 예약 및 등록 비용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가 자유선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보다 6배 정도 비싼 편이다.

(Bremer Nachrichten, 9. 18) (www.bremer-online-service.de)